

[선데이 칼럼] '잃어버릴 10년' 경고, 흘러듣지 말아야

입력 2023.04.15. 오전 12:29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전 금융위원장

2023년은 '물가'보다 '경기 침체'가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로 다가왔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다. 반도체 경기 급랭과 대중(對中) 수출 감소의 역풍 탓이 크다. 무역수지 적자가 13개월째 이어져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의 최악으로 치닫고, 올해 1분기 무역수지 적자가 지난해 연간 적자 규모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실물경기 위축의 심각성을 보여 준다. 경제위기 전주곡으로 읽히는 경상수지 적자도 11년 만에 처음으로 두 달 연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춘계회의 화두는 악화일로의 단기 성장과 중장기적 경기 둔화 전망이다. IMF는 한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를 4회 연속 삭감한 1.5%로 내렸고, 향후 5년간의 세계 성장 예측을 연평균 3%로 과거 30년 평균 대비 큰 1%포인트 낮춰 잡았다. 미국 은행파산 사태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키우면서 경착륙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3.5%로 두 번째로 동결해 통화정책 초점이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 대응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올해 한국 성장률이 1%대도 어렵다는 비관론과 함께 최근 원화 약세는 경제 체력 약화를 반영한다고 본다.

선·후진국병, 일본·아르헨티나병
합병증세로 잠재성장률 추락
근본치유 없이는 국가 미래도 없어
감동과 희망 주는 정치리더십 절실



선데이 칼럼

이런 와중에 세계은행은 다가올 ‘잃어버릴 10년’ 경고음을 높이고 있다. 과거 30년은 세계화 물결 속에 자유무역과 국가 간 투자 확대 등으로 고성장·저금리의 유례 없는 호황 시기였던 반면에 다가오는 10년은 투자 증가율 감퇴, 고령화와 노동생산성 약화 그리고 국제무역 증가세 둔화로 생산성 증가율은 떨어질 전망이다. 세계 잠재성장률 예측은 2000년대 초반 3.5%, 2011~2021년 2.6%에서 향후 10년은 30년 이래 최저 수준인 연 2.2%로 낮췄다. 세계 평균 성장을 밑도는 한국 경제에 던지는 메시지가 심상치 않다.

2017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이후 6년째 3만 달러 초반을 헤매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자칫 닥쳐 올 장기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른바 ‘3만 달러의 덫’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소득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고지로 역대 가장 빨리 1년 만에 올라선 아일랜드를 포함해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등은 3년 이내에 점프했으나 남유럽 3국(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은 아직도 3만 달러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실패국들의 공통점은 노동시장 경직성과 낮은 생산성, 높은 국가부채비율, 불안한 정치사회 환경 등이다.

전형적인 실패 사례로 꼽히는 이탈리아의 경험은 시사점이 적지 않다. 2005년에 3만 달러를 돌파했으나 지난해 3만5000달러 선에 머물며 18년째 답보상태를 이어 온 이탈리아는 기본소득을 앞세운 좌파 정부를 포함해 포퓰리즘 정당들이 돌아가며 집권하는 혼탁한 정치구도에 휘말려 왔다. 돈 풀기 정책이 부채를 키우고